

제112회 임시회 제1차회의
2004. 7. 16(금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① 국도3호선 및 37호선 차로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국도3호선 및 37호선 차로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

검 토 보 고

1. 건의내용

가. 제출일 : 2004. 7. 14

나. 건의자 : 거창군 마리·위천·북상면 주민 1,924명

다. 회부일 : 2004. 7. 14

마. 건의요지

- 마리면 관내 국도3호선과 37호선이 교차되는 삼거리 지역의 연결차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에서 거창군과 협의하여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건의

2. 추진경과

- 2004. 7.12 주민대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방문
건의서 제출
- 2004. 7.13 주민건의서 제출 (주민→거창군청)
- 2004. 7.13 주민건의사항 전달(군→부산지방국토관리청)
- 2004. 7.14 다수인민원 합동조사 실시
(국토관리청, 현장감리인, 거창군관계공무원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안의-마리-송정-주상구간의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2005.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4차로 확장공사와 접속하는 국도 3호선 및 37호선은 2차로로 이루어져 덕유산국립공원, 거창수승대국민관광지, 금원산 자연휴양림, 월성계곡을 비롯한 무주리조트와 연계되어 4계절 피서객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휴가철이 되면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며, 특히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됨으로 인하여 교통난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.
- 이러한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이며, 거창군과 협의하여 정부기관에 조기시공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.
- 동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서와 서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조기착공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, 거창군에서는 주민건의사항을 진달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건의문 채택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감안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의 협조공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